

< 한국 학교 교사 일기문 >

2025년 4월 19일.

1.

눈이 부시게 하늘이 푸르른 토요일,
우리는 한국 학교의 아침을 열었다.
오늘은 이번 학기에 배울 역사 인물들을
소개하는 날이다. 최근 한 청소년 동계
에세이 대회에 가까운 학생이 뽑은, '민족
의 지도자'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이시다. 비록 발행이 무산되었지만, 우
리나라 10만원권 지폐 속 인물로 선포한
역사적 위상이 높으신 분이시다. 바로.
"겨레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님!"

한 국 학 교 교 사 가 쓰 는 일 기 문 九 편.

“ 백 범 일 지 그 뜻 을 품 고

교 사 일 지 그 빛 을 잇 다.”

중 앙 한 국 학 교 교 사

김 다 복

2025년 4월 20일

2

해 년 마 다 이 맘 때 엔 학 생 들 에 게 백 범 일 지
를 일 게 했 다 . 올 해 는 교 사 인 내 가 면
저 백 범 일 지 상 . 하 렴 을 완 룝 하 리 라 .
누 군 가 를 가르 치 는 일 . 스승 도 사 랑 의
일 이 라 누 군 가 의 스승 이 기 이 전 에 , 누 군
가 의 학 생 이 되 어 보 고 자 하 는 간 절 한
목 마 름 으 로 책 을 펴 냈 다 . 어 썸 이 토 록
상 세 하 게 잘 기 록 하 셧 을 까 ? 시 간 이 지
나 면 퇴 색 할 수 있 는 역 사 의 기 억 을 ' 기
록 ' 으 로 또 려 이 남 겨 주 심 에 감 사 드 린 다 .

2025년 4월 21일

3

	책	속	에	서	의		김	구	는		결	정	이		없	는		완	벽	
한		모	습	만	이		아	니	였	다	.		실	수	와		갈	등	이	
있	는		진	술	함	이		있	었	다	.		그		또	한		누	군	가
의		소	중	한		아	비	였	다	.		옥	바	라	지		하	는		한
여	인	의		남	편	이	였	다	.		조	금	만		풍	자	리	가		사
나	와	도		아	들	에	게		무	슨		일	이		생	겼	을	지		
노	심	초	사		잠	못	이	루	는			어	머	니	의		아	들	이	었
다	.	역		사	먹	으	려			아	버	지	의		동	을		흥	치	고
여		사	먹	으	려		머	평	한		술	가	락	을		여	장	수	에	
게		팔	기	도		했	다	.		동	네	에	서	도		내	어	놓	은	

말	썩	꾸	러	기		어	린		소	년	을		도	대	체		무	엇	이	
오	늘	날		우	리	가		아	는		백	범		선	생	님	으	로		
만	들	었	을	까	?		“	창	수		글		공	부		시	킨		죄.”	
작	은		아	버	지	가		한		말	처	럼		김	구	가		김	구	
되	게		했	던		그		근	원	에	는		글	공	부	..	즉		교	
육	이		시	작	이	었	다	.		그	것	이		평	범	한		소	년	을
비	범	한		지	도	자	로		만	든		교	육	의		힘	이	리	라	.
		어	려	한		상	황	에	서	도		가	르	칠		기	회	를		만
들	어		제	자	를		만	들	고		가	르	쳐	던	,		민	족	의	
크		스	승	은		이	렇	게		탄	생	하	였	다	.					

2025년 4월 23일

4

백범 일지를 읽어가다 문득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김구가 한때 내 고향 하
동 쌍계사에 머무셨다는 것이다. 봄에는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붉게
타오르는 단풍나무 아래 고갯길을, 선생
님도 오르셨을 것이리라 하고 생각하니 무
척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 하동의 아름
다운 사계절을 보고 자란 그 시골 소
녀는 이제 중년이 되어, 미국 버지니아
에 있는 한 한국학교의 스승이 되었다.

2025년 4월 26일

5

5

1 교 사 알 기 수 업 을 막 시 작 하 려 는 데

교 무 선 생 님 이 공 히 부 르 신 다 . 학 생 한

명 이 수 업 을 피 해 서 화 장 실 에 서 게 임 을

하 고 있 단 다 . 참 으 로 당 황 스 럽 다 . 이 러 면

어 뤄 게 할 지 난 감 할 때 가 많 다 . 요 즘

아 이 들 은 꿈 이 업 단 다 . 한 국 학 교 도 영

마 의 강 요 로 억 지 로 왔 단 다 . 오 늘 같 은

날 에 열 반 에 김 구 선 생 님 이 계 셴 다 면 얼

마 나 죽 을 까 ? 교 육 현 장 에 서 선 생 님 의

가 르 침 과 조 언 이 사 무 치 게 간 절 하 다 .

역	사	는		매		시	대	마	다		새	로	운		과	제	를		제
시	하	고		있	다.	김	구		선	생	님		시	대	의		형	난	
항	과	는		사	물		다	를		모	습	으	로		오	늘	로		우
리	는		한	번	도		가	보	지		못	한		길	을		걸	는	다.
코	로	나		19	라	는		알	국	문		바	이	러	스	는		대	면
교	육	의		문	을		"	광	!"	하	고		세	차	게		달	아	버
다.		우	리		모	두	가		서	로		응	원	하	며		온	라	인
수	업	이	라	는		새	로	운		문	을		열	었	다.		교	권	이
바	다	을		치	는		차	가	운		교	육	의		현	실	속	에	서
도		나	는		오	늘		교	육	의		희	망	을		잡	는	다.	

2025년 5월 3일

6

백병 일지 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 될

김구에게 일본 순사 는 말 했다. “지주가

전담의 몽우리들을 골라 내는 것은 당연

한 일 아니냐” 그때 런던 김구의 몽

기 있는 답변이 가슴에 사무친다.

“오냐. 나는 죽어도 몽우리들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몽우리들의 책무를

다 하리라.” 목숨을 내놓는 결정이 결

코 쉽지 만은 앓을 험로 일생을 몽우리들

정신으로 살아가심에 숭고함을 느낀다.

2023년 10월 13일

7.

지	역	사	회	에	서	세	계	문	화	를	소	개	하	는		
교	려	스	축	제	에	서	우	리	한	국	학	교	학	생	들	
이	오	프	닝	무	대	에	섰	다	.	20	명	의	한	복	을	
입	은	학	생	들	이	애	국	가	와	,	우	리	의	소	원	은
통	일	'을	불	렀	다	.	대한	의	완	전	한	독	립	을		
외	창	단	김	구	선	생	님	의	간	절	한	바	람	이	아	
이	들	의	노	래	소	리	에	답	겨	가	을	하	는	높	이	
을	거	퍼	쟁	다	.	“	나	의	소	원	은	우	리	나	라	대
한	의	완	전	한	자	주	독	립	이	요	.	나	김	구		
소	원	은	이	것	하	나	밖	에	는	없	다	.	”			

2025년 5월 10일

8.

아침부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백범 인물 탐방

마지막 날로, 그동안 배운 학습의 결과

물들을 발표하는 날이다. 꿈이 없어

흑백 사진 같았던 아이들이 선명한 컬러

사진으로 바뀌어 가는 날이다. “코리언

어메리칸으로 서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아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배움이 더

할수록, 한 줄 문장이 두 줄이 되고, 열 줄

로 늘어가는 것을 보며 벅찬 감격을

느	꼈	다.	어	떻		아	이	는	김	구	유	투	브	코	
테	스	를	맛	갈	나	게	만	들	었	고.	Ch	at	G	P	
											T	를			
이	용	하	여	백	범	의	바	이	오	그	래	피	를	제	법
멋	지	게	완	성	해	왔	다.	다	소	쑥	스	려	워	하	
기	도	했	지	만	미	니	연	극	으	로	김	구	의	생	애
를	보	여	준	학	생	들	도	있	었	다.	김	구	선	생	님
이	그	시	절,	활	동	사	건	에	담	고	쇼	업	터	소	
중	한	순	간	들	을,	순	수	한	열	정	과	현	대	의	
기	술	에	담	아	선	생	님	께	올	려	드	리	는	시	간,
백	범	이	꿈	꾸	터	아	름	다	운	주	인	공	들	이	다.

2025년 5월 15일

9.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편지를 쓰

자고 했다. 나는 겨레의 큰 스승, 김구

선생님께 마음 다해 감사편지를 썼다.

“백범 선생님께 모리호 감사의 글”

“좋은 스승은 양초와 같아서 스스로를

태워 다룬 이들의 길을 밝히다지요.”

선생님.. 생각해 보면 교육이란?

누군가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일인 것

같	습	니	다	.	선	생	님	이	스	승	고	능	선	선	생	님			
게		받	은		교	육	의		불	씨	를	,	평	생	나	눠	주	시	
여		사	냈	지	요	.		선	생	님	을		만	난		이	봉	창	
열	사	는		일	왕	에	게		수	류	탄	을		런	졌	습	니	다	.
	선	생	님	을		만	난		안	중	근		의	사	는		하	열	빈
여	에	서		이	토		히	로	부	미	를		저	격	하	였	습	니	다
	혜	전		옷		속	에	서		돈	을		개	내	주	며		떠	나
는		동	지	를		격	려	하	였	습	니	다	.						
	임	시	정	부	시	절		몽	우	리	를		정	신	을		품	고	
대	한	독	립	을		꿈	꾸	는		애	국	동	지	들	의		방	향	을

성	해		주	었	습	니	다	.	일	제	의		압	제	아	래		거	의		
개	결	뻔		했	던		우	리		민	족		훈	의		불	꽃	을			
온		천	하	에		활	활		타	오	르	게		하	셨	습	니	다	.		
	어	찌	한		장	애	물	을		만	나	도		국	민	들	을		계		
뭉	하	리	라	는		뜻	을		꺼	지		않	았	습	니	다	.				
	교	육	의		힘	,	문	화	의		힘	을		강	조		하	시	며		
아	름	다	운		나	라	를		공	과	셨	습	니	다	.		그		간		
절	한		바	람	과		다	르	게		오	늘	날		한	국		사	회		
는		힘	들	고		희	망	이		업	다	는		“	헬	조	선	”	이	라	는
신	조	어	를		만	들	어		냈	습	니	다	.		이		차	갑	고		

냉랭한 세대에 뜨거운 불씨를 전하느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겠지요.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전 부리

마오.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업느 나라.”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신 선생님. 참으로 수고 많으

셨습니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삭 속았수다”

(제주방언: 수고 많으셨습니 다.)

2025 스승의 날에..